

#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앙진’과 팔진 원리

홍을표\*

1. 머리말
2. 고대 중국 팔진의 연원
3. 송·명대의 팔진 연구
4. 원앙진의 출현배경과 구성 원리
5. 맺음말

## 1. 머리말

원앙진(鴛鴦陣)은 명나라 척계광이 저술한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있는 진법(陣法)의 하나로 왜구 토벌작전에 탁월한 효력을 발휘한 전법(戰法)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가 『기효신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척계광의 전법을 사용하여 평양성 탈환작전을 성공시킨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군문에서 소개 받은 이후부터이다. 조선에서는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해 부대훈련에 이용하면서 여러 차례

---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수정정보판을 간행하였다.<sup>1)</sup> 국립 진주박물관에 소장된 정경달(丁景達)<sup>2)</sup>의 반곡진법(盤谷陣法)에는 『기효신서』의 목차가 첨부되어 있어서 당시 무관들이 『기효신서』를 학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종 때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기효신서』를 간행하여 원본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명나라의 병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만의 병서로 발전시켰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sup>3)</sup> 이와 같이 척계광의 저술은 조선의 병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몇 가지 예로 『병학지남』·『무예제보』·『연병지남』·『무예도보통지』와 『기효신서』의 중요한 요점만을 요약한 『기효신서절요』 등은 직간접적으로 『기효신서』나 『연병실기』의 영향을 받아 간행된 병서들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1998년에는 국방군사연구소에서 조선본 『기효신서』를 영인하여 군 부대와 전국 연구기관에 배포하였고 2011년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그 일부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된 『기효신서』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현대는 물론 미래에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앙진은 척계광이 창안한 독창적인 진법으로 고대 중국의 전통 진법인 팔진법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팔진법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의하여 축한의 제갈량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 원앙진 또한 명나라의 척계광이 왜구를 막기 위해 만든 진법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팔진이나 원앙진은 별개의 진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소설이나 전설을 통해 고대의 신비한 진법으로 간주되거나 세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진법이 출현하게 된 동기를 보면, 개인의 전투능력을 조직의 전투력으로, 조직의 전투력을 대단위 전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1) 『紀效新書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8, 1~37쪽.

2) 정경달(1542~1602)은 임진왜란 때 선산부사로서 관찰사 김성일, 병마절도사 조대근과 함께 경상도 금오산에서 적을 물리쳤다. 1594년에는 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盤山世稿』, 아세아문화사, 4~7쪽].

3) 『紀效新書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8, 30~31쪽.

고안되었다. 조직적인 전투를 하게 되면 전차에 탑승한 승무원들과 같이 용맹한 전사라도 독단적으로 공격할 수 없고, 나약한 병사라도 홀로 물러서지 못하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손무(孫武)는 이것을 '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로 비유하였고, 제갈량은 '훈련된 병사는 무능한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신(韓信)은 고대 중국 5000년 전쟁 역사를 통해 가장 뛰어난 명장이라 한다.<sup>4)</sup> 한신과 같은 명장도 구리산에 있는 항우의 강동 8,000명 정예부대를 격파할 방법이 없어 사면초가라는 심리전으로 분산시킨 뒤에야 각개 격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우는 남아 있는 28명의 기병들을 4개 조로 나누어 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훈련된 부대는 쉽게 격파 당하지 않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전투능력이 아닌 진법이란 부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장에서 진법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작게는 군대의 존폐를 판가름하는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였으며, 크게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전쟁터에서, 상대국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 하나의 진법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국가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현상은 물론 그 국가를 수호하는 군대의 규모나 무기체계, 부대편성, 전투방법, 인재의 등용 등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나 군대의 상황 역시 자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다. 그러기에 진법이 역사에 끼치는 영향은 사소한 듯 보이지만 한 시대의 상황을 심도 있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4) 中國軍事史 編寫組, 『中國歷代軍事家』, 北京解放軍出版社, 2004, 245쪽. [현대 중국 문헌은 한자로 표기함].

5) 사마천, 『史記』 제7권, [『文淵閣四庫全書(이하 『사고』로 약칭)], 項羽本紀. “乃有二十八騎, 漢騎追者, 數千人…乃分其騎, 以爲四隊…四面騎馳, 下期山東.”

1981년에 허선도가 「〈진법〉고(考)」<sup>6)</sup>를 발표한 이래 1983년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병장설·진법』을 성백효에게 번역시켜 출간한 바 있다. 이후 1987년에는 황병국이 「조선조의 진법고찰」<sup>7)</sup>이란 제목으로 손빈<sup>8)</sup>의 팔진법·십진법과 충무공의 학익진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1990년에는 성백효가 송규빈<sup>9)</sup>의 『풍천유향』을 번역하였는데 그 가운데 상승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1996년에는 김광수가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sup>10)</sup>을, 1998년에는 백기인이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sup>11)</sup>, 노영구가 「양완<sup>12)</sup>의 악기도설과 전차운용론」<sup>13)</sup>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0년에는 노영구가 『오위 진법의 복원과 '(어정)이진총방』<sup>14)</sup>을 단행본으로 간행하고,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sup>15)</sup>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서영교는 「나당전쟁기 당병법의 도입과 그 의의」<sup>16)</sup>를 발표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백기인이 「동아3국 근대 전법 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sup>17)</sup>과

6) 허선도, 「〈陣法〉考」, 『군사』 제3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1.

7) 황병국, 「조선조의 진법고찰」, 『군사』 제15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7.

8) 손빈(?~BC316)의 본명은 실전되었으나, 손무의 후손으로 산둥 건성 사람이다. 스승 귀곡자 밑에서 방연과 동문수학을 했으나 방연의 무고를 받아 두 무릎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제나라로 달아난 뒤, 제의 군사가 되어 마릉의 전투에서 방연을 격파하고 자살하게 했다. 1972년 임기현 은작산 한묘에서 그의 병서 30편이 죽간본으로 발견되었다. [張撝之 等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99(이하 『인전』으로 약칭), 779쪽].

9) 송규빈(1696~?)은 조선 숙종과 정조 때의 무관으로 그의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7, 29~38쪽].

10) 김광수,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제50호, 육군사관학교, 1996.

11) 백기인,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 『군사』 제36호, 국방군사연구소, 1998.

12) 양완(1744~1816)은 정조 때의 무관으로 선전관, 장연부사(長淵府使), 영종방어사(永宗防禦使), 경상좌도 수군절제사를 역임하였고 『악기도설(握奇圖說)』을 저술하여 진법의 원리를 밝혔다. [양완, 김영길 역, 『國譯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151~153쪽].

13) 노영구, 「양완의 악기도설과 전차운용론」, 『문헌과 해석』 제6호, 1998.

14) 노영구, 「오위 진법의 복원과 「(御定)肄陳總方」」, 문헌과 해석사, 2000.

15)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6) 서영교, 「나당전쟁기 당병법의 도입과 그 의의」, 『한국사연구』 제116호, 한국사연구회, 2002.

17) 백기인, 「동아3국 근대 전법 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sup>18)</sup>를 발표하고, 2005년에는 남원 양씨의 문중에서 양완의 『악기도설』을 번역한 『국역 악기도설』<sup>19)</sup>과 노영구의 『조선시대에 재현된 각종 고전 진법의 형태와 내용』<sup>20)</sup>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에 노영구의 「18세기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 전술」,<sup>21)</sup> 2008년에 최형국의 『군사들의 진법, 그 비밀을 풀다』,<sup>22)</sup> 2009년에 박낙현의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sup>23)</sup> 등이 나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10년에 안명노<sup>24)</sup>의 『연기신편』<sup>25)</sup>을, 2011년에는 조선본 『기효신서』 중 상권을 유재성에게 번역시켜 출간한 바 있다.<sup>26)</sup> 같은 해에 김동경은 「정도전의 '진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sup>27)</sup>을, 최형국은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sup>28)</sup>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일반적인 학술연구와 같이 학계의 연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척계광이나 이순신 같은 명장들도 선인들이 남겨 놓은 지식을 토대로 삼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현재는 물론 후대까지도 적지

18)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7.

19) 양완, 김영길 역, 『國譯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20) 노영구, 『조선시대에 재현된 각종 고전(古典) 진법(陣法)의 형태와 내용』, 문헌과 해석사, 2005.

21)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 전술」, 『군사』 제6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22) 최형국, 『군사들의 진법(陳法), 그 비밀을 풀다』, 인물과 사상사, 2008.

23) 박낙현,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제35호, 동양고전학회, 2009.

24) 안명노(1620~1680)의 본관은 순흥이다. 효종 1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양산군수로 재직 중에 『연기신편』을 저술하여 척계광의 병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안명노, 유재성 역, 『演機新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11~19쪽].

25) 안명노, 유재성 역, 『演機新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26) 척계광, 유재성 역, 『紀效新書(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27)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陣法)' 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제53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1.

28) 최형국,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 『국방부 간행물』 제78호, 국방부, 2011.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고대의 전사를 보면 사소한 듯 보이는 착안 하나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고 국가와 역사의 운명이 달라졌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때문에 이 글 역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국토를 방위하는 장병들에게 일말의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중국 측 연구로는 1982년에 구지광(谷霽光)이 발표한 「고대 전술 중에서 중요한 진형의 하나인 방진〔古代戰術中的主要陣形一方陣〕」<sup>29)</sup>, 위 따지(余大吉)의 「제갈량의 팔진도 및 진법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다〔諸葛亮的八陣圖及陣法試探〕」,<sup>30)</sup> 리우 더정(劉德增)의 「진시황 병마용의 군진은 팔진중의 방진이다〔秦始皇兵馬俑軍陣實即八陣中的方陣〕」,<sup>31)</sup> 왕 후이창(王輝強)의 「진나라 병마용과 진군의 진법〔秦兵馬俑與秦軍陣法〕」,<sup>32)</sup> 탄 량샤오(譚良嘯)의 「다시 제갈량 팔진도를 논하다〔再論諸葛亮八陣圖〕」,<sup>33)</sup> 리 바이순(李伯勛)의 「고대 팔진의 연원과 제갈량 팔진의 고략〔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sup>34)</sup> 티안 자오린(田昭林)의 「제갈량의 팔진도〔諸葛亮的八陣圖〕」,<sup>35)</sup> 환 수량(宦書亮)의 「제갈량 팔진도 탐색〔諸葛亮八陣圖探蹟〕」,<sup>36)</sup> 왕 루핑(王路平)의 『송나라 진법과 진도를 탐구하다〔宋代陣法與陣圖初探〕』<sup>37)</sup> 등을 열람해 볼 수 있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한(漢)나라 이전의 팔진이나 제갈량의 팔진도를 다루고 있지만 주제에 비하여 소개되는 내용들은 소량으로 제한적이었다. 일본 측의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근대화 이후 화약무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진법의 효율성을

29) 谷霽光, 「古代戰術中的主要陣形一方陣」, 『江西社會科學』 第十期, 中國, 1982.

30) 余大吉, 「諸葛亮的八陣圖及陣法試探」, 『中國史研究』 第三期, 中國, 1994.

31) 劉德增, 「秦始皇兵馬俑軍陣實即八陣中的方陣」, 『文博』 第四期, 中國, 1994.

32) 王輝強, 「秦兵馬俑與秦軍陣法」, 『文博』 第四期, 中國, 1994.

33) 譚良嘯, 「再論諸葛亮八陣圖」, 『天府新論』 第四期, 中國, 1997.

34) 李伯勛, 「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 『成都大學學報(社科版)』 第1期, 中國, 1998.

35) 田昭林, 「諸葛亮的八陣圖」, 『軍史歷史研究』 第二期, 中國, 1999.

36) 宦書亮, 「諸葛亮八陣圖探蹟」, 『南昌大學學報(人社版)』 第1期, 中國, 2003.

37) 王路平, 「宋代陣法與陣圖初探」, 中國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각주 29)~37)의 중국 논문들은 국내에서 구해 보기 어려웠는데 중국 장춘에서 교환 근무 중인 정병하 선생께서 자료를 구해 주셨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상실한 것이 관심을 잃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특히 원양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척계광에 의해 창안되어 왜구를 격퇴하는데 운용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조선에 도입되어 군사훈련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척법, 즉 원양진이 출현하기까지 고대 중국의 팔진법을 조명해 보면서 진법의 기본이라 하는 팔진법과 척계광이 창안한 원양진이 별개의 진법인지 아니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옛 문헌들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팔진법과 원양진법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신비에 싸인 팔진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역사의 반복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황 때부터 출현했다고 알려진 진법은 5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형태들이 출몰하였지만 그 원리는 하나라는 것이 명나라 중기까지 내려 온 정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원양진이 출현하여 그 정설을 흔들여 놓았다. 때문에 팔진이나 원양진이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진법을 창안하고 운용하는데 흔들림 없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고대 중국 팔진의 연원

고대 중국에서 진법이 생성된 유래는 복희·신농·황제 등으로 불리는 삼황의 신화와 함께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로서가 아니라 하도(河圖)를 보고 팔괘를 만들었다는 복희의 사괘진(師卦陣)과 황제가 탁록(涿鹿)에서 치우를 물리칠 때<sup>38)</sup> 진법을 운용했다는 기록들이 적지 않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악기경(握奇經)』은 황제가 탁록 전쟁에서 사용했던 진법을 풍후(風后)에게 명하여 기록으로 남긴

38) 사마천, 『史記』 제1권, [『사고』 제243책, 39쪽]. “蚩尤作亂，不用帝命，於是黃帝，乃徵師諸侯，與蚩尤戰於涿鹿之野.”

것이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되고 있지만, 서구화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물론 조선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한 예로 당 태종<sup>39)</sup>이나 송 신종<sup>40)</sup>과 같은 황제들이나 조선의 안명노(安命老)와 양완(梁完) 같은 연구자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sup>41)</sup>

고대 중국의 진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출현하였지만 ‘진법’이란 명칭보다는 ‘팔진’이란 명칭이 자주 사용된 것 같다. 그것은 황제 때 저술되었다는 『악기경』을 진법의 정종으로 간주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악기경』의 서두에 “팔진이란 4개는 정진이고, 4개는 기진이다”<sup>42)</sup>라는 문구와 고대 중국의 부대 배치의 정전법(井田法)에 의해 8개의 방진을 편성했던 데서 유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sup>43)</sup> 『악기경』 외에 팔진이란 용어를 사용한 예는 전국시대 손빈의 병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44)</sup> 팔진이란 용어는 병서가 아닌 여타의 문헌에서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漢)나라 정씨(鄭氏)가 주를 달았던 『주례주소』와 송나라 정이동의 『주역상의』 등을 포함한 많은 문헌에 팔진이란 용어가 나오며 『후한서』에는 두헌(竇憲)이 팔진법으로 흉노를 격파했다<sup>45)</sup>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법이란 명칭이 팔진으로 사용된 시기나 그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중국의 연구자들 역시 팔진이란 용어는 제갈량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하였고,<sup>46)</sup> 리 바이쉬은 “중국 고대에서는 진법을

39) 이정, 『李衛公問對』, [『사고』 제726책, 147쪽]. “太宗曰, 深乎. 黃帝之制兵也, 後世雖有, 天智神畧, 莫能出其闔闔.”

40) 탁극탁, 『宋史』 제195권, [『사고』 제283책, 593쪽]. “帝, 諭近臣曰, 黃帝始置, 八陣法, 敗蚩尤於涿鹿.”

41) ① 안명노,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간사자 연도 미상, 29쪽. “八陣之制, 本於河洛…八陣之法, 始於此也.”

② 양완, 『握奇圖說』, 간사자 연도 미상, 4~6쪽. “軒轅之井田, 本於河圖…五爲陣法 四爲閑地.”

42) 풍후, 『握奇經』, [『사고』 제726책, 3쪽]. “八陣, 四爲正, 四爲奇.”

43) 왕응전, 『周禮翼傳』, [『사고』 제96책, 432쪽]. “握機奇正圖.”

44) 손빈, 『孫臏兵法』, [『中國兵書集成』 (이하 『병집』으로 약칭)] 第1冊, 北京解放軍出版社, 1987, 174쪽.

45) 범욱, 『後漢書』 제53권, “(竇)憲, 字伯度, 父(竇)勳…勒以八陣, 洩以威神.”

46)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434쪽.

습관적으로 팔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sup>47)</sup>

팔진법은 제갈량에 의해 팔진도(八陣圖)로 승화되어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삼국시대 촉한의 입지조건은 조조의 위(魏)나라나 손권의 오(吳)나라에 비하여 열악하였다. 그래서 수적 열세에 있는 촉한의 군사로 위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였고, 제갈량은 그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팔진도를 창안하였다. 팔진도의 위력은 실전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제갈량의 촉군에 맞서 위군을 지휘한 사마의 역시 위나라에서는 뛰어난 전략가로 인정받았기에 발탁되었다. 그런 그가 촉군에 비해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제갈량과 싸울 때마다 패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에는 그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① (제갈량은)병법을 연구하여 팔진도(八陣圖)를 만들고, 그 요결을 터득하여 완성시켰다.<sup>48)</sup>
- ② 선왕(宣王-사마의)이 그들의 영누(營壘)와 처소를 둘러보고 나서 “천하의 기재이다”라고 말하였다.<sup>49)</sup>

①은 진수가 제갈량의 팔진도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②는 제갈량이 죽고 촉군이 철수하자 그들의 진터를 둘러 본 사마의가 제갈량을 가리켜 한 말이다. 사마의는 제갈량과 싸울 때 마다 패전하였기에 수비만 하였다. 속전속결을 원했던 제갈량은 건흥 12년(234)에 사마의에게 아녀자의 옷을 보내며 ‘남아 대장부라면 당당하게 출전하여 싸우자’고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사마의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촉군과 싸울 엄두를 못 냈다.<sup>50)</sup> 그만큼 촉군의 전투력이 나 제갈량의 전법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47) 李伯勳, 「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 『成都大學學報(社科版)』第1期, 1998, 51쪽.

48) 진수, 『三國志』, [『사고』 제254책, 587쪽]. “推演兵法, 作八陣圖, 成得其要云.”

49) 위의 책 587쪽. “宣王, 案行其營壘處所曰, 天下奇才也.”

50) 양시위 편, 『諸葛忠武書』, [『사고』 제447책, 182쪽]. “十二年, 丞相亮…甘受畏蜀如虎之譏 巾幗婦人之辱.”

수적으로 열세했던 촉군이 위나라의 대군과 결전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촉군이나 제갈량에게 위군이나 사마의가 풀어 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며, 진수는 그것을 팔진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팔진도는 실존했던 전법이며 제갈량이 남긴 진법의 유적지까지 <그림 1>과 같이 몇 군데 전해진다고 한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는 대력 원년(766)에 기주(夔州)에 있는 팔진도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팔진도라는 영사시(詠史詩)를 읊은 바 있다.<sup>51)</sup>

제갈량이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훈련장 중 몇 군데는 명나라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훈련장을 둘러 본 동진(東晉)의 환온(桓溫)은 “상산의 뱀과 같은 기세를 갖고 있다”<sup>52)</sup>라고 하였으며, 당나라 이정(李靖)(571~649)은 이것을 토대로 육화진(六花陣)을 만들었다<sup>53)</sup>고 하였다. 조설(趙高)은 희녕 2년(1069) 11월에 변경 수비를 담당하는 장수들에게 제갈량의 팔진도를 가르치게 하자며 제안하기도 하였다.<sup>54)</sup>

명나라 중기에 『팔진합변도설』을 저술한 남장(藍章)<sup>55)</sup>과 용정(龍正)<sup>56)</sup>은

<그림 1> 팔진의 유적지(백색)



51) 邱燮友 註譯, 『新譯 唐詩三百首』, 臺灣 三民書局, 1989, p.330.

52) 방교, 『晉書』 제98권, 열전 제68. <桓溫>. “初諸葛亮, 造八陣圖於魚復平沙之上, 壘石爲八行, 行相去二丈, 溫見之謂, 此常山蛇勢也.”

53) 이정, 『李衛公問對』, [『사고』 제726책, 152쪽]. “太宗曰, 卿所制六花陣法, 出何術乎. 靖曰, 臣所制, 本諸葛亮八陣法也.”

54) 탁극탁, 『宋史』 제195, 진법, [『사고』 제283책, 591쪽].

55) 남장(1453~1526)은 성화(成化) 20년에 진사가 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정덕(正德) 원년에 도찰원 좌첨도어사가 되었으나 유근(劉瑾)의 미움을 사 무주(武州) 통판으로 좌천되었다. 유근이 실각하자 다시 발탁되어 섬서의 순무가 되었다. 용정과 같이 제갈량의 팔진도를 연구하고 『팔진합변도설』을 지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臧勵和 等編, 『中國人名大辭典』, 中國 上海書店印行, 1984(이하 『명전』으로 약칭), 1724쪽].

56) 용정(?~?)은 무도 사람으로 명나라 정덕 연간에 한중에 있는 남장의 진중에서 『팔진합변도설』을 저술했다고 하지만 자세한 행장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명전』, 1632쪽].

제갈량이 남긴 유적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④진도(陣圖)의 유적은 네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면양(沔陽)<sup>57</sup>이고, 한 곳은 신도(新都)<sup>58</sup>이며, 한 곳은 어복(魚腹)<sup>59</sup>이고, 한 곳은 남시(南市)<sup>60</sup>이다. 내가 면양을 찾아 무후의 묘에 절하고 그 옛 진터를 답사했으나 식별하기 어려웠다. 들은 바 대로 신도와 남시를 찾았으나 이 또한 파괴와 훼손이 심하여 옛 흔적을 살펴 볼 수 없었다. 오직 어복에 설치된 것만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의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그 배치도를 그리게 하여 관찰해보니 ⑥64개의 무더기는 전방에 배치되어 팔진을 이루고 있고, 24개의 무더기는 후방에 에둘러 각월진(却月陣)을 형성하고 있었다.<sup>61</sup>

위에 내용에 따르면 남장과 용정은 제갈량 팔진도가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④에 의하면 당시까지 전해진 팔진의 유적은 면양·신도·어복·남시 등 네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제갈량이 부대를 주둔시켰거나 훈련시켰던 지역으로 진터의 유적이 남아 있었지만 세 곳은 훼손이 심하여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어복포는 기주(夔州) 구당현(瞿塘縣) 남일리(南一里) 어복강을 말하는 것으로 유비가 오나라의 정벌에 실패한 뒤 제갈량을 볼 날이 없다며 자신의 촉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백제성에서 죽었는데 그곳을 영안궁이라 불렀고 어복강은 그 부근이다. 어복강변에 설치된 누석은 당시에도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기

57) 면양(沔陽)은 홍원부 서현 동남쪽으로 10여리 떨어진 정군산 동쪽에 있는 계곡이다. 높고 평탄한 지역으로 제갈량이 숙영하던 팔진도가 있었으나 훼손이 심하여 식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왕응린, 『玉海』 제142권, 漢諸葛亮八陣圖].

58) 신도(新都)의 팔진향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부 서현 북쪽 30리에 미모진(彌牟鎭)이 있었다고 한다. [출전은 위와 같다].

59) 어복(魚腹)은 기주 구당현 남일리 영안궁의 남강 탄수 위에 있었다. [출전은 위와 같다].

60) 남시(南市)는 일명 기반시(碁盤市) 또는 광도(廣都)라고 하며 성도(成都) 근처에 있는 곳으로 팔진의 진영이 있던 곳이다. [출전은 위와 같다].

61) 용정, 『八陣合變圖說』, [『병집』 제40책, 37~38쪽]. “④圖之蹟有四, 一在沔陽, 一在新都, 一在魚腹, 一在南市. 予尋至沔陽, 拜武侯之墓, 而訪其舊壘, 已不可識. 聞新都·南市者, 亦殘破不可考, 惟魚腹者, 迄今如故, 予使人圖而觀之. ⑥六十四壘, 布于前者, 八陣也. 二十四壘, 環于後者, 却月陣也.”

때문에 사람을 시켜 그 포진 형태를 그리게 하여 관찰하였다고 한다. ⑥는 어복강 누석이 배치된 의미를 설명하였다. 64개의 돌무더기는 전방에 배치되어 팔진을 이루고 있고, 24개의 무더기는 후방에 에둘러 각월진〔반달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정의 『이위공문대』나 이전(李筌)<sup>62)</sup>이 쓴 『태백음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8 \times 8 = 64$ 의 방진과 유사한 것이다.

팔진도는 제갈량이 죽은 뒤에도 활용되거나 연구되었다. 진(晉)나라 무제(236~290)는 진협(陳懿)에게 제갈량의 진법을 배우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sup>63)</sup> 같은 시기에 서량(西涼) 원정을 자청한 마룡(馬隆)<sup>64)</sup>도 팔진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목민족들은 기사(騎射)를 잘하였기에 고대 중국의 보병이나 기병·전차로는 상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sup>65)</sup> 그러나 마룡은 편상거(偏箱車)를 만들어 팔진법으로 싸우면서 독발수기능(禿髮樹機能)이 만든 자석진을 통과하였고, 협곡에 포위를 당했어도 편상거 속에서 적을 쏘아 죽이며 천 리를 진격하여 양주의 수기능을 평정하였다.<sup>66)</sup> 이로보아 흉노나 돌궐, 몽고와 여진으로 불리는 유목민족들은 기마전투를 잘하였으나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룡과 같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다.

마룡은 진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진법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악기경(握奇經)』은 풍후가 저술한

62) 이전(李筌)은 당나라 숙종~대종 연간 사람으로 추정되며 형남절도부사와 선주자사를 지냈고 소실산에서 거처하며 장략이 있어 『太白陰經』을 지었지만 이후의 종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명전』, 428쪽].

63) 방교, 『晉書』, [『사고』 제255책, 439~440쪽]. “武帝甚重, 兵官…先是, 陳懿, 爲文帝所待. 蜀破後, 令懿, 受諸葛亮圍陣, 用兵倚伏之法…甚爲武帝所任.”

64) 마룡(?~?)은 동평 평록 사람이다. 삼국시대 조조의 무관이었으나 후에 서전에서 벼슬하여 양주의 반란을 평정한 뒤 그 곳을 십 여 년간 진수하였다. 『인전』, 65쪽].

65) 반고, 『前漢書』 49권, [『사고』]. “爰盜鼂錯傳 第十九…今匈奴, 地形技藝與中國異, 上下山阪, 出入溪澗, 中國之馬弗與也. 險道傾仄, 且馳且射, 中國之騎, 弗與也. 風雨罷勞, 飢渴不困, 中國之人, 弗與也. 此匈奴之長技也.”

66) 방교, 『晉書』, [『사고』 제255책, 943쪽]. “隆依八陣圖, 作偏箱車…且戰且前…轉戰千里, 殺傷以千數.”

뒤 춘추시대에는 범려(范蠡), 전국시대에는 악의(樂毅)가 주석을 달았으며, 전한의 공손홍(公孫弘)<sup>67)</sup>이 해설을 덧붙였다고 하지만, 마룡이 찬(讚)을 쓴 책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악기경』의 저자는 풍후가 아니라 마룡이 제갈량의 팔진도를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악기경』의 저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진법을 연구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악기경』을 진법의 정종으로 보고 그 비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sup>68)</sup>

『악기경』의 부대 배치는 단순하다. <표 1>과 같이 하나의 진을 9개의 진으로 나누고 전·후·좌·우 또는 네 모서리에 정진(正陣)이나 기진(奇陣)을 편성한 뒤 중앙에는 지휘부인 악기(握奇)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천(天)·지(地)·풍(風)·운(雲)과 비룡(飛龍)·호익(虎翼)·조상(鳥翔)·사반(蛇蟠)이라는 여덟 가지 진세를 운용하며 충(衝)·형(衡)·축(軸)과 풍(風)·운(雲)의 부대들을 작전 상황에 따라 배치하였다.<sup>69)</sup> 이 부대들의 기능을 보면, 충이란 오늘날의 기갑부대와 같은 강력한 공격 부대이고, 형이란 보병부대, 축이란 방어부대, 풍과 운은 역습부대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군(遊軍)이 있었는데 유군은 예비 병력으로 대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1> 악기진의 9진

|    |    |    |
|----|----|----|
| 正陣 | 奇陣 | 正陣 |
| 奇陣 | 握奇 | 奇陣 |
| 正陣 | 奇陣 | 正陣 |

당나라 개국공신 이정은 육화진을 창안하여 변경의 이민족들을 격파한 일세의 명장이었으나 당태종과의 문답에서 자신

67) 공손홍(BC200~BC121)은 전한의 치천 설 사람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가축을 길렀으나 40세부터 학문을 시작하여 한 무제 때 오경박사(五經博士)가 되었다가 무제의 신임을 받아 원사 5년(BC124)에 승상으로 발탁되었다. [『인전』, 2002쪽].

68) 『握奇經』의 내용은 : 홍을표, 「풍후의 악기경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각주 5)의 「고대 진법의 원리」에서 참고할 수 있음.

69) 충·형·축·풍·운·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 홍을표, 「제갈량의 팔진법 탐구」,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65호, 2011, 139~173쪽 참조.

의 육화진도 제갈량의 팔진법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하였다.<sup>70)</sup> 그래서 제갈량의 팔진법은 당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전되었다고 한다.<sup>71)</sup>

현존하는 진법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전(李筌)의 『태백음경』이다. 그는 군인이 아니고 도가의 현학에 심취되어 신선술을 찾아 입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태백음경』이란 병서를 저술하면서, 영도(營圖)에 휴(休)·생(生)·상(傷)·두(杜)·경(景)·사(死)·경(驚)·개문(開門)이란 8개의 문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이 팔진법으로 와전되어 후세의 연구자들이 진도에 문을 배치하며 진을 방어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은, “영누에서 전쟁 방법을 가르치려면 도식이 있어야만 군사들이 진격과 정지할 바를 알게 되며, 징과 북의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적과 싸우는 전진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에 한 번 승리한 방법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군대의 움직임은 물과 같다. 물이 지형에 따라 흐르듯 군대는 적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적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하면서 승리하는 자를 귀신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전진에 도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못난 장수들은 진도를 그려 놓고 그걸 군사들에게 가르쳐 고정된 방법으로 싸우려 한다. 그렇듯 우둔한 자들이 적진에 대한 상황판단 또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sup>72)</sup>라고 하면서 전진(戰陣)은 일정한 형태로 그려 낼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당나라 때의 진형(陣形)에는 이전이 남긴 것과 배서(裴緒)가 남긴 것이 있다. 이전의 진도는 『태백음경』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나 『문연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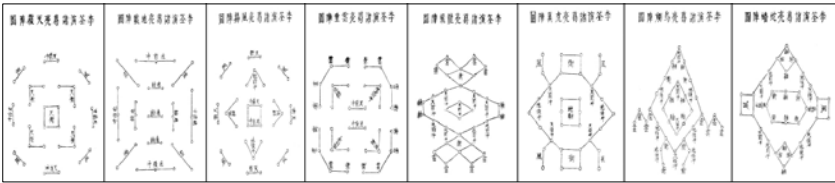
70) 李靖 撰, 任孔閃 注譯, 『唐太宗李衛公問對』, [『中國經典兵書』 上卷, 山東 友誼出版社, 2002, 691쪽]. “臣所本, 諸葛亮八陣法也.”

71) 안명노,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간사 연도 미상, 3쪽. “唐李靖以後, 其法無傳.”

72) 이전, 『太白陰經』, [『사고』 제26책, 204쪽]. “夫營壘教戰有圖, 士卒知進止, 識金鼓, 其應敵戰陣, 不可預形, 故, 其戰勝不復, 而應形無窮, 兵形象水, 水因地而制形, 兵因敵而戰勝, 能與敵變化, 而取勝者, 謂之神則, 其戰陣無圖明矣. 而庸將以教習之陣, 爲戰, 敵之陣, 不亦謬乎.”

전서』의 판본에는 모두 '원도궐(原圖闕)'이라 하며 진도들은 누락시켰기에 모원의(茅元儀<sup>73</sup>)가 편집한 『무비지(武備志)』에서 <그림 2>와 같은 진도들을 발췌하여 하나로 묶어 보았다.

<그림 2> 이전의 팔진도



출처 : 『중국병서집성』 29책, 2218~2232쪽.

<그림 2>의 진도들은 이전이 제갈량의 팔진을 그려 놓은 것이라 한다. 왼쪽으로부터 하늘의 광대 원만한 의미를 상징하는 천복진(天覆陣), 땅을 상징하는 지재진(地載陣), 바람을 상징하는 풍양진(風揚陣), 구름을 상징하는 운수진(雲垂陣), 용의 비상을 상징하는 용비진(龍飛陣), 호랑이의 맹격을 상징하는 호익진(虎翼陣), 맹금(猛禽)의 박격을 상징하는 조상진(鳥翔陣), 독사의 맹독 공격을 상징하는 사반진(蛇蟠陣) 등 여덟 가지 진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일견하여 천지풍운 4개의 진형은 방어형태를 띠고 있지만, 용호조사 4개의 진형은 공격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진도들은 후세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 왔다.

73) 모원의(1594~1640)는 절강성 귀안(지금의 절강성 오흥) 사람이다. 명대의 대장이자 문학가 모곤의 손자로 부총병을 지냈다. 1621년에 『武備志』 240권을 완성하였다. [『명전』, 716쪽].

### 3. 송·명대의 팔진 연구

송나라를 개국한 조광윤은 공신들의 반란을 색원하기 위하여 장수들의 병권을 회수하고 문관들에게 군의 지휘권을 맡기는 중문경무(重文輕武) 정책을 폈기에 무신들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점차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신종(1067~1084) 때는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진법을 포함하여 많은 군사문헌들을 종합해 『무경총요』를 간행하였다. 이 『무경총요』에는 '본조평음만전진법'과 '본조팔진법'을 포함하여 '풍후악기진도'와 당나라 배서의 '배자법' 등 여러 진도 등이 수록되어 있어 고대 중국의 진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황제가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진도를 야전 부대에 하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은 야전 지휘관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하는 전장 현실을 무시하였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sup>74)</sup>

송나라 때에도 개인적으로 진법을 연구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겠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문헌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와 고사손(高似孫)의 『자략(子略)』, 허동(許洞)의 『호검경(虎鈴經)』 등을 꼽을 수 있다. 『호검경』에는 '악기도'·'연월도'와 '비악진도'·'장홍진도'·'중하진도'·'팔괘진도'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진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고대 중국의 진법을 연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원나라 때는 진법을 연구했던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명나라 때의 진법 연구가들은 한결 같이 팔진법의 비밀을 풀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장엽(張燁)과 남장(藍章)·용정(龍正)·조본학(趙本學)<sup>75)</sup>·유대유(俞大猷)·척계광(戚繼光)·하량신

74) 王路平, 『宋代陣法與陣圖初探』, 中國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10쪽.

75) 조본학(1478~1544)의 본명은 조세욱으로 송 태조 조광윤의 후예인 조자손의 직계 자손이다. 유대유의 스승으로 역학과 군사에 뛰어나 『趙注孫子兵法』과 『韜鈴內外篇』을 지었는데 『趙注孫子兵法』은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명전』, 1393쪽].

(何良臣)<sup>76</sup>)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당순지(唐順之)<sup>77</sup>)·왕명학(王鳴鶴)<sup>78</sup>)·모원의(茅元儀)와 같은 인물이 『무편(武編)』·『등단필구(登壇必究)』·『무비지(武備志)』 등을 저술하여 강군육성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직접 연구한 성과를 저술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했기에 연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제갈량 팔진법의 복원에 있었다. 그것은 『이위공문대』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과 진 사이에 진이 배치되고, 부대와 부대 사이에 부대가 배치되며, 전방이 후방이 되고, 후방이 전방이 되며, 진격할 때는 서둘러 돌진하지 않고 후퇴할 때도 급히 달아나지 않는다. 머리가 네 곳이고 꼬리가 여덟 곳이라 적과 접촉하는 곳이 머리가 된다.<sup>79)</sup>

진이나 부대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의 부대가 임무교대를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진이나 부대가 진출입할 수 있는 기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방이 후방이 되고 후방이 전방이 되어 적과 접촉하는 곳이 공격부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모든 면이 견고하게 되려면 쇠로 만든 둥근 구슬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구슬에는 날카로운 공격부위가 없다. 그래서 방어에는 완벽할지 몰라도 공격의 효과는 발휘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명대의 연구자들은 이 말 때문에 저마다 팔진의 비법을 찾는데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폄하하고 자신들이 연구한 것만이 팔진법의

76) 하량신(?~?)은 절강 여요 사람으로 가정(1522)에서 만력(1615) 연간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軍權』·『陣紀』·『利器圖考』·『制勝便宜』 등을 저술하였다. [姜國柱, 『中國軍事思想簡史』, 中國 新世界出版社, 2006, 324쪽].

77) 당순지(1507~1560)는 명나라 양명학자이다. 저서로 『武編』 등이 있다. [『인진』, 2039쪽].

78) 왕명학(?~?)은 명나라 남직예 산양(지금의 강소성 회안) 사람이다. 대략 명나라 후기 가정에서 만력 연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하며 『登壇必究』를 써서 군사 분야에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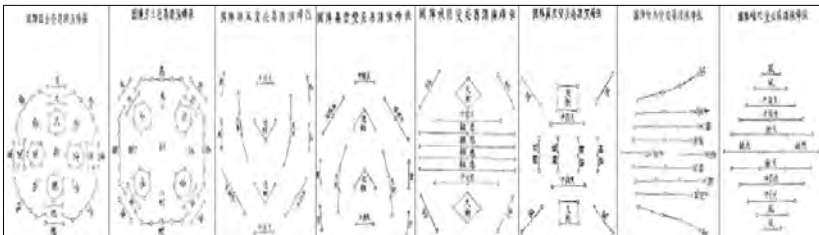
79) 이정, 『李衛公問對』, [사고] 제726권, 146쪽]. “太宗曰…陣間容陣, 隊間容隊, 以前爲後, 以後爲前, 進無速奔, 退無遽走, 四頭八尾, 觸處爲首.”

진수라고 주장하였다.

영락(1402~1424) 때 장엽이 『태을통종보감(太乙統宗寶鑑)』 속에 다수의 진법을 수록한 것이 명대 진법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장엽의 행장기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본학이 저술한 『도검내외편』에 장엽이 그렸다는 여러 가지 진도들이 인용되고 있고, 그가 '영락제 시대에 과거에 등과했다'는 짝막한 기록이 전부이다. 영락제는 정난의 변으로 정권을 잡은 뒤 여러 차례 북벌을 단행하였기에 장엽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때는 병법이나 진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장엽의 진법이나 진도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엽은 당나라 이전(李筮)의 『태백음경』을 바탕으로 많은 진도들을 그려 놓았다. 그 중 팔진분변도는 <그림 3>과 같이 64진을 32개 진씩 나누어 놓았지만 이것은 이전의 팔진도를 약간 변형시킨데 불과하다. 현재 장엽이 지었다는 『태을통종보감』은 접해 볼 수 없고, 조본학이나 모원의가 편찬한 『속무경총요』나 『무비지』에 의존하여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 글에서는 장엽의 진도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림 3> 장엽의 팔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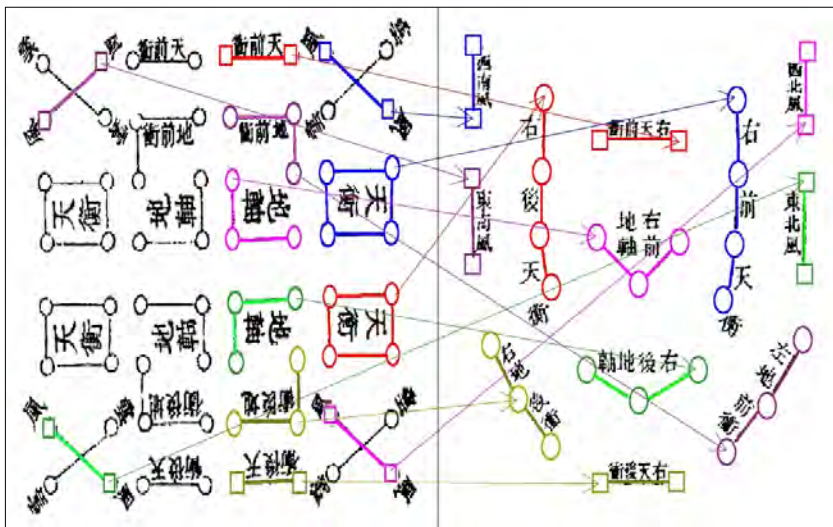
출처 : 『중국병서집성』 29책, 2254~2280쪽.

장엽 이후에 팔진을 연구한 인물은 정덕 연간(1505~1521)에 사천의 내란을 평정했던 남장(藍章)과 용정(龍正)을 꼽을 수 있다. 용정은 평생 많은 병서를 연구하여 군사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남장이 사천에서 발생한 민란을 토벌하기 위해 순무로 부임하였을 때, 남장과 교분이 있던 용정은 그의 진중에 들어가 제갈량이 설치했다는 팔진의 유적지를 답사한 뒤 이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그림 3>의 진도들을 일부 변화시키며 어복강에 배치된 64개의 누석들을 안과 밖, 좌와 우, 전과 후, 그리고 사유(四維) [네 귀퉁이]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그림 4>와 같은 변화를 도출하면서 그때마다 각각 32개 부대씩 양분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를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로 저술하였다. 이 방법으로 관군을 훈련시킨 결과 나약했던 군졸들이 용맹한 정예부대로 탈바꿈하여 반란세력을 토벌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80)</sup>

그들이 제갈량의 팔진법을 터득하였는지 여부는 제갈량이 입증해 주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관군들에게 제갈량의 팔진법이란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강화시켜 전장이탈 행위를 방지하면서 싸우게 한다면 팔진법이 아니라도 전투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장과 용정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반란세력 토벌에 진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64진에서 풍양진으로 변화하는 각 부대의 위치와 변화선



출처 : 『중국병서집성』 40책, 18쪽과 24쪽의 진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80) 용정, 『八陣合變圖說』, 『병집』 제40책, 3~6쪽].

〈그림 4〉는 8개의 진형 중에서 좌와 우로 양분한 풍양진의 부대이동 방향이다. 이 도식을 보면, 64개 부대들을 32개씩 둘로 나누어 왼쪽은 운수진으로 오른쪽은 풍양진으로 변화시키면서 부대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충·형·축과 풍·운으로 구분해 놓고 이동하는 위치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도식의 왼쪽에는 풍양진의 역방향으로 배치된 운수진이 있으나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용정의 팔진도는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선에서는 『기효신서』의 증보판을 간행하면서 '15권 별집 진도편'에 추가시켜 놓았다.

이후의 연구가로는 조본학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이전이나 장엽의 진도에 대하여 일고할 가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sup>81)</sup> 진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역리로 설명하였다.

나, 조본학이 옛 진법을 살펴보니, ㉠복희가 만든 역(易)을 근본으로 삼고 현원이 만든 악기(握奇)를 조화시켜 이루어진 것이다…㉢무후는 이미 죽었고, 구당현에 설치한 종횡의 누석만 남았으나 이정이란 인물이 그 비법의 열쇠를 얻어 한 시대를 풍미했다.…㉡글 줄이나 익혔다는 선비들은 어지러이 천착하며 망령되게 형세를 논한 것이라 교묘하지만 쓸모가 없다.<sup>82)</sup>

위 글의 내용을 보면, ㉠는 팔진법이 역리와 『악기경』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하였고, ㉢는 당나라 이정(李靖)도 제갈량이 남긴 구당현 어복포의 유적에서 비결을 얻어 육화진을 만들었기에 육화진 역시 팔진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저술한 『도검내외편』 속에 있는 18세의 진도<sup>83)</sup>들이야 말로 팔진의 정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81) 유대유, 『屬武經總要』, 『병집』 제17책, 593~595쪽. “何辯之…李筌張燁, 漫不知兵, 徒泥合.”

82) 위의 책, 699~700쪽. “學, 按古陣法, ㉠伏羲易象爲之宗, 軒轅握奇, 觀象而成者也…㉢武侯既沒, 賴瞿塘遺跡, 縱橫獨存, 有李靖, 能識其扁鑰, 一代之民域…㉡文士紛紛, 穿鑿陳言, 妄立形勢, 巧而無用.”

83) 위의 책, 701~720쪽.

그러나 그 진도들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않았다. 조본학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제자 유대유와 무관하지 않다. 조본학에게 유대유와 같은 제자가 없었다거나 유대유가 왜구들의 토벌작전에 실패하였다면 조본학 역시 주목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유대유는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척계광과 함께 명나라 때 명장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유지를 받아 『속무경총요』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현존하는 유일한 진법전문 서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전통 진법은 명나라 신종(1572~1619) 때 척계광이 창안한 원양진 때문에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팔진도는 전장에서 사용해 본 일이 없지만 척계광의 원양진은 싸울 때 마다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그의 진법은 북방 계진(薊鎮)에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방어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척계광 이후에는 하량신이 4권으로 된 『진기(陣紀)』를 저술하였다. 그는 당시 명군의 실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군의 기강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권에서는 고대 중국의 역대 진법을 <표 2>와 같이 개관하며 논평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글 II장에서 개관한 '고대 중국 팔진의 연원'도 하량신의 『진기』를 참고하여 엮어 본 것이다.

<표 2> 하량신이 제시한 중국의 대표적인 진법

| 시 대  | 인 물      | 진의 명칭    | 시 대    | 인 물      | 진의 명칭      |
|------|----------|----------|--------|----------|------------|
| 삼황오제 | 복희(伏羲)   | 사괘진(師卦陣) | 춘추시대   | 전양저(田穰苴) | 악기영진(握奇營陣) |
| "    | 현원(軒轅)   | 악기진(握奇陣) | "      | 손무(孫武)   | 승지진(乘之陣)   |
| 주(周) | 태공(太公)   | 삼재진(三才陣) | 전국시대   | 이인(異人)   | 상기진(象棋陣)   |
| "    | 주공(周公)   | 병농진(兵農陣) | 진한시대   | 한신(韓信)   | 해하진(垓下陣)   |
| 춘추시대 | 고거미(高渠彌) | 어려진(魚麗陣) | 삼국시대   | 제갈량(諸葛亮) | 팔진도(八陣圖)   |
| "    | 순오(荀吳)   | 숭졸진(崇卒陣) | 서진(西晉) | 마룡(馬隆)   | 편상거진(偏箱車陣) |
| "    | 함려(闕閭)   | 계부진(鷄父陣) | 당(唐)   | 이정(李靖)   | 육화진(六花陣)   |
| "    | 관중(管仲)   | 내정진(內政陣) | 명(明)   | (척계광)    | (원양진)      |

출처 : 하량신, 『진기』, 『문연각 사고전서』, 제727책, 703~705쪽의 내용을 정리함.

『사고전서』의 『진기』 제요(提要)를 쓴 청나라 관료들이 하량신을 평하길 “명나라 중엽에는 군비가 망가져 국경에 변란이 잦았으나 오합지졸로 싸웠기에 열 번 출전하면 아홉 번은 패하였다. 그래서 하량신은 구구절절 먼저 훈련을 시킨 뒤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설명한 요결에는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야전에서 입증되었다.(중략) 명나라 때에 병법을 담론한 자들은 척계광이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곤 허황된 논리를 펴고 있었다. 예로 탕광열(湯光烈)이나 팽상(彭翔)의 논리는 연극이나 잡기에 가깝지만 오직 하량신은 직접 군중에서 실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허망한 논리나 잡설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나라의 다른 병가들에 비해 그의 주장은 절실하고 사리에 맞는다”<sup>84)</sup>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II장과 III장에서 분석해 본 고대 중국의 팔진법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지만 그 원리는 수학의 가감승제(加+·減-·乘×·除÷)와 같은 일정한 공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악기경』에서는 진도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제갈량의 팔진도는 팔진법을 토대로 창안한 것으로 보이며 『무비지』나 여타의 문헌에 수록된 우수한 진도(陣圖)들은 대부분 팔진법이나 팔진도를 응용한 변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팔진법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며 필자는 이것을 십원방각(十圓方角)이라는 진호(陣號)로 표현한 바 있다.<sup>85)</sup>

- ① 팔괘와 구정법에 의해 창안되었다.
- ② 전·후·좌·우·중의 조직으로 부대를 인체와 같이 운용한다.
- ③ 기(奇-공격)와 정(正-방어)의 전법을 함께 사용한다.
- ④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84) 하량신, 『陣紀』, [『사고』 제727책, 675~676쪽]. “①明之中葉, 武備廢弛, 疆圉有警, 大抵鳩烏合以赴敵, 十出九敗, 故, ②良臣所述, 切切以選練爲先, 其所列機要亦多, 卽中原野戰, 立說…明代, 談兵之家, 自戚繼光, 諸書外, ③往往摺摭陳言, 橫生鄙論, 如湯光烈之掘穿藏鐵, 彭翔之木人火馬, 殆如戲劇, ④惟良臣, 嘗身在軍中, 目睹形勢, 非憑虛理斷, 攘袂坐談者, 可比在明代兵家, 猶爲切實, 近理者矣.”

85) 홍을표, 「고대 진법의 원리」, 『군사』 제7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236~238쪽.

전장에서 진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예로 『손자』·『오자』와 같은 병서들을 줄줄 외우고 있더라도 진법을 모른다면 전국시대 조괄<sup>86)</sup>과 같이 성공적인 작전을 할 수 없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오늘날 각각의 병종(兵種)으로 기능화 된 소부대 전술을 모르면 대부대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 4. 원양진의 출현배경과 구성 원리

원양진을 창안한 척계광은 군직(軍職)을 세습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명사』 척계광 전에 따르면, 그는 1528년에 태어난 인물로 등주(지금의 산둥성 봉래현) 사람이다. 아버지는 척경통으로 조상 대대로 등주위 지휘참사를 세습하였고, 도지휘라는 관직을 거쳐 대녕(지금의 하북성 보정현) 도사의 서리로 있다가 궁궐에 들어가 신기좌영의 부장이 되었다. 그는 청렴 검소하며 자애로운 덕망이 있었다.

척계광은 어렸을 때부터 호방한 뜻을 품어 뛰어난 기개와 비범한 기상이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책 읽기를 좋아하여 경서와 역대 사서에 통달하였다. 가정 23년(1544), 17세 때 아버지가 죽자 조상의 관직을 세습하여 등주위 지휘참사가 되었다가 몇 년 후에는 서도지휘참사로 추천받아 산둥 지역에서 왜구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1555년에는 절강도사(浙江都司)의 첨사(僉使)로 부임하였지만 호종헌(胡宗憲)<sup>87)</sup>의 추천으로 참장(參將)에 보임되어 영파(寧波)·소흥(紹興)·태주(台州) 세 고을의 부대를

86) 조괄(?~BC260)은 조나라 장수 조사(趙奢)의 아들로 병서에 달통하였으나 장평(長平)의 전투에서 진나라 장수 백기(白起)에게 패하여 조나라 40여만 대군을 몰살 당하게 하였다. [『인진』, 1632쪽].

87) 호종헌(?~1565)은 휘주부 속계사람으로 가정 17년에 진사가 된 이래 승진을 거듭하며 절강 일대를 순안해 공을 세우고 우도어사 태자태보로 승진했으나 당시 조정의 권세를 독점한 대학사 엄송(嚴嵩)·엄세번(嚴世蕃) 부자의 역모사건에 일당으로 몰려 투옥되었다가 죽었다. 그의 막료 정약중 등을 시켜 편집한 『주해도편』이 있다. [『인진』, 1699쪽].

관리하였다. 척계광이 절강에 부임해 보니 그곳의 관군은 농사꾼이었지 적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 실정에 대하여 “오늘날 군대를 보니 고달프고 지쳐 나약하기가 인형과 같다”<sup>88)</sup>라고 표현한 바 있다. 물론 훈련이 잘 된 부대였다면 왜구들이 난동을 부리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척계광도 발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명군의 전력이 왜 상실되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명군은 개국 초에 진우량(張友諒)이나 장사성(張士誠)을 격파하고 원(元) 제국을 중국에서 몰아내었으며, 영락제 때는 다섯 차례나 막북을 원정할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락제가 죽고 한동안 안정된 시대가 지속되면서 점차 전투력을 상실해 갔다. 명나라는 화약과 무기가 발전하고 많은 병서들이 저술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군부가 황실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병부(兵部)와 오군도독부로 병권을 이원화시키면서 장수와 병사들을 격리시켰다. 전쟁이 발생하면 장수에게 병력을 주어 출전시켰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 이런 상황이라 병사들은 유능한 장수로부터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그의 지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장수는 장수대로 병사들의 전투능력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sup>89)</sup> 그래서 손자가 말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개선되어 갔지만 한 번 무너진 군의 기강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다.

명나라 초기의 병력 자원에는 주원장이 기의할 때 참여한 종정(從征) 군사와 항복해 온 귀부(歸附) 군사, 죄를 지어 충군(充軍)한 적발(謫發) 군사, 징집한 타집(垛集) 군사 등 네 종류가 있었는데 일단 천하가 안정되자 군호제(軍戶制)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고급 군관들에게는 자손대대로 음직되는 혜택이었으나 군졸들은 자손 대대로 병역의무를 충당해야 하는 형벌이 되었기에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sup>90)</sup> 그 결과 정통 3년(1438)에는

88) 척계광, 『紀效新書』, [『사고』 제228책, 491쪽]. “見今日之軍, 疲憊懦弱, 略似人形.”

89)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50쪽.

90) 남의현, 『명대 요동지배 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354~365쪽.

달아난 군졸들의 숫자가 1,633,664명이나 되었다.<sup>91)</sup>

전국 각처에 위소(衛所)를 설치하여<sup>92)</sup> 병력을 분산시키고 둔전을 하게 한 것도 전투력이 상실된 원인 중 하나이다. 위소와 둔전은 강력한 군사집단이 집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국가규모의 대부대의 전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군사들은 자신들의 군량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영농에 매달려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sup>93)</sup> 그럼에도 주원장은 “나는 백만 대군을 양성하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쌀 한 톨도 거두지 않았다”<sup>94)</sup>라고 하며 자만에 빠져 있었다.

이 외에도 환관의 전횡과 관리들의 부패, 군부에 대한 지나친 감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병사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군호의 세습과 둔전이였다. 그들은 군사훈련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호구지책이 더 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은 달아나고 늙고 병약한 군졸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은 없었다.<sup>95)</sup>

척계광이 부임한 절강의 사정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척계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모병을 건의하였다. 당시는 금화(金華)와 의오(義烏)의 백성들이 용맹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에 특별히 그들 3,000명을 모병하였다. 약삭빠른 도회지 백성들보다는 우직하지만 용맹스러운 농민들이 훈련시키기에 용이했던 것이다. 척계광은 그 병사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공격·방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였다. 남쪽 지방은 늪과 연못이 많아서 기병이나 전차가 빨리 치달을 수 없었기에 지형에 맞는 전법을 연구하다가 가정 39년

91)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4쪽.

92) 위소(衛所)는 명나라의 군대의 기본 편제이다. 명태조 주원장은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예하에 도사(都司)·행도사(行都司)·유수사(留守司)·호위(護衛)·위(衛)·소(所) 등으로 나누어 부대를 배치하였다. [①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39쪽; ② 張金奎, 『明代衛所軍戶研究』, 中國 線裝書局, 2007, 50~76쪽.; ③ 남의현, 『명대 요동지배 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47~191쪽].

93) 남의현, 『명대 요동지배 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325~335쪽.

94) 『續文獻通考』 제122권. “吾養兵百萬, 要不費百姓一粒米.”

95)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4쪽.

(1560)에 긴 병기와 짧은 병기가 서로 도우면서 싸우는 원앙진을 창안하였다. 원앙진으로 훈련된 군사들은 척가군(戚家軍)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후 척계광은 전함이나 화기·병기들은 정밀하게 정비하여 재배치하고 왜구 토벌작전에 참가했다. 『명사』 척계광전에 기록된 대규모 전투만 보더라도 가정 40년(1561)에 태주(台州)의 왜구들을 격파하였고, 가정 41년(1562)에는 복건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였으며, 이 승세를 타고 복청(福淸)의 우전(牛田)에 있는 왜구의 본거지를 소탕하였다. 그해 4월에는 홍화성을 수복하고, 다음 해 2월에는 선유(仙遊)를 포위한 왜구를 공격하였다. 그 뒤 영녕(永寧)에 있던 왜구들을 추격하여 전공을 세우는 등 다수의 대소 전투에서 모두 승전하였다.

척계광의 군대가 싸울 때마다 전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원앙진이란 독특한 전법으로 왜구의 장기인 왜검 등과 같은 무기들을 제압했기 때문이다.<sup>96)</sup> 당시 왜구들이 소지한 장검에 대한 제원을 찾아보니 『사고전서』에

〈표 3〉 岡山縣立博物館에 소장된 平安~延寶시대 太刀의 규격

| 시 대 구 분            | 칼날 두께(cm)   | 칼날 길이(cm)    |
|--------------------|-------------|--------------|
| 平安시대(794~1185) ①점  | 2.4         | 79.0         |
| 平安~鎌倉시대 ①점         | 1.8         | 73.8         |
| 鎌倉시대(1185~1333) ①번 | 3.4         | 79.5         |
| " ②번               | 2.6         | 73.4         |
| " ③번               | 3.3         | 80.1         |
| " ④번               | 2.4         | 69.1         |
| " ⑤번               | 2.0         | 73.0         |
| " ⑥번               | 2.6         | 69.9         |
| 應永시대(1423) ①점      | 2.3         | 63.8         |
| 延寶시대(1677) ①점      | 1.7         | 73.0         |
| <b>평 균</b>         | <b>2.45</b> | <b>73.46</b> |



출처 : 岡山縣立博物館, 『晴れの國の名寶 -岡山の國寶・重要文化財-』, サンコー印刷株式會社, 2010. 83~116쪽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96) 장정옥, 『明史』 제18책, 북경 중화서국, 1995, 5611쪽.

수록된 『기효신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조선본 『기효신서』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는 5자 (151.5cm) 인데 그 범위 안에는 구리로 날을 싸 맨 동호(銅護)가 1자 (30.3cm)가 되기에 실제 칼날은 4자 (121.2)라고 하였다. 칼자루는 1자 5촌 (45.45cm)이라 전체의 길이는 6자 5촌 (약 197cm)에 무게는 2근 8량 (1.68kg)이라 하였다.<sup>97)</sup>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왜구들은 체격이 작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자신들의 키만 한 장검을 들고 날아다니듯 싸우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본 『기효신서』의 장도(長刀)는 『중국 병기사고』에 수록된 명나라의 장검과 제원이 같았다.<sup>98)</sup> 당시 왜구들이 사용하던 칼은 어떠하였을까? 이 궁금증을 갖고 2012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서해안 지역을 답사하며 마츠에쵸 성(松江城)과 돗토리(鳥取) 현립박물관, 시마네(島根) 현립박물관, 고대 이즈모(出雲) 역사박물관 등에서 살펴 본 고대 일본의 칼들과 오카야마(岡山) 현립박물관에서 간행한 도록을 통하여 <표 3>과 같은 평균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 보면 당시 일본인들이 사용한 장검의 평균 날 길이는 73cm 정도였다. 자루의 길이를 30~45cm로 볼 때 전체의 길이는 대략 103~118cm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지금 검도인들이 사용하는 진검과 별 차이가 없는 규격이며 이 칼이라면 자유롭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분안(文安) 4년(1447)에 제작된 길이 226.7cm의 긴 칼도 있었으나 많은 군사들의 사용한 무기로 보기는 어려웠다. 일본도에는 다양한 형태와 규격이 있기에 이 칼들이 왜구가 사용한 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박물관에 전시된 이 시기의 대다수 칼들이 대동소이한 규격을 보이고 있는 점과 병기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유사하게 제작된다는 통용성을 고려해 볼 때, 명나라를 침구한 왜구들도 <표 3>과 비슷한 규격의 칼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sup>99)</sup>

97) 『紀效新書』, 국방군사연구소, 1998, 175쪽.

98) 周緯, 『中國 兵器史稿』, 中國 百花文藝出版社, 2006, 308쪽. “5.長刀.”

99) 도검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중국·한국·일본 등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쓴 酒井利信의 『刀劍觀の日本精神史的研究』와 같은 논문에서도 왜구들이 독특한 무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척계광은 왜구의 장기인 장검과 창, 활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원양진을 창안하여 훈련시켰다. 이 진법은 5명을 1오(伍)로 하고, 2오를 1대(隊)로 조직하여 1명의 대장(隊長)이 지휘하였다. 그리고 지휘자를 잃으면 소속 원들을 모두 죽이는 연좌제를 통하여 대열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원양진의 전법이나 무기체계는 『기효신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정약중의 『주해도편』과 당순지가 쓴 『무편』 등을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오장(伍長)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좋은 사람을 1명 선발하여 한 장의 방패를 들게 하였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비로 전장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었다. 오장의 공격 무기로는 단도와 표창을 각각 하나씩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후에는 조총을 휴대시키기도 하였다.<sup>100)</sup> 그는 최전방에 서서 왼쪽만을 담당하게 하고 우측이나 후방은 신경 쓰지 못하게 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낭선(狼筈)을 갖고 방패의 오른 쪽 다섯 자 (약 1.5m)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바짝 붙어 싸우게 하였다. 낭선은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짧은 마디에 가지가 많은 대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많은 겹가지가 달린 낭선은 방어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무기로 날렵한 왜구들의 장검이나 창을 방어하는데 방패 못지않은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중 하나인 창을 각각 한 자루씩 들고 낭선의 3보 (3.65m) 뒤에서 좌우로 갈라져 싸우게 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당과(鎗鈹)라는 삼지창을 들고 싸우게 하였다. 당과는 화총(火銃)을 설치한 이화창(梨花槍)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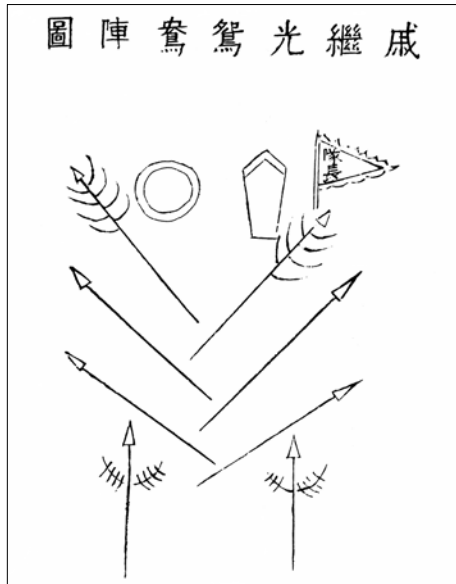
『기효신서』나 『주해도편』에서는 낭선은 물론 창이나 당과 등의 병기에 대하여 일정한 제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같은 무기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길이나 중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본 『기효신서』를 보면 창(槍)의 제원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낭선은 길이가 1장 5척 (약4.54m)이며 무게는 7근(4.2kg)이고, 당과는 길이가

100) 王兆春, 『中國古代軍事工程技術史』, 中國 山西教育出版社, 2007, 355쪽.

7자 6촌(약 2.3m)에 무게가 5근(3kg) 이라고 기록해 놓았다.<sup>101)</sup>

원양진의 전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패수가 전진하면 나머지 군사들은 바짝 붙어 따라다니며 혼연일체가 되어 싸웠다. 예를 들어 적이 등패수의 머리를 공격하면 등패수는 등패로 막고, 그 순간에 원양진의 창수(槍手)가 적을 찌른다. 훈련이 잘 되었다면 적의 창이 등패를 공격하는 순간 창수는 적을 찌를 수 있었다. 적이 등패의 왼쪽에서 남

〈그림 5〉 척계광의 원양진도



출처 : 『중국병서집성』 제29책, 2579쪽.

선수의 등 뒤를 찢러 중상을 입히려 하면 적의 창은 등패수의 눈 앞 3자 남짓한 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등패수는 적의 창을 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 등패수가 적창을 잡고 있으면 뒤에 있는 창수가 신속히 적을 죽였다. 적창이 오른 쪽에서 등패수의 엉덩이를 찢러 중상을 입히려 하면 남선수는 남선으로 적창을 찢히고 뒤에 있는 창수가 다시 공격하였다. 적창이 등패수의 다리를 공격하면, 등패수는 등패로 적창을 누르고, 그 틈에 뒤에 있는 창수가 적을 죽였다. 적이 갖고 있는 칼이나 구(鉤)와 같은 짧은 병기는 원양진의 무기들이 길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등패수는 오직 한 쪽 면만을 주시하며 남선수의 등을 보호하고, 남선수 역시 한 쪽 면만을 주시하여 등패수의 등을 보호해 주었다. 창수나 당파수 등은 등패의 6~7척(2.1m) 뒤에 서 있으면 적이 날리는 화살이나 돌을 피할 수 있었기에 좌우를

101) 『紀效新書』, 국방군사연구소, 1998, 186쪽과 195쪽.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었다.<sup>102)</sup> <그림 5>는 원앙진의 배치를 도식한 것이다.

척계광은 이와 같은 전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군율을 만들어 전투에서 생명을 아끼는 군졸들을 처벌하였다.

원앙진은…오(伍)로 뭉쳐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첫 번째 전법은 후방에서 진식(陣式)을 전개 시킨 뒤 두 명의 등패수가 나란히 정렬하면 낭선수는 각각 그 뒤에 바짝 따라 붙는다. 등패수 한 명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 그 뒤에 있던 장창수 두 명은 각자 분담하여 등패수 한 명과 낭선수 한 명을 지켜 준다. 당파수는 장창수가 공격을 머뭇거리면 그를 죽여 버린다.

②상오장(上伍長)이 등패수의 앞에서 지휘하면 나머지 병사들은 원앙진을 구성하여 등패수 뒤에 밀착해 등패수를 엄호한다. 등패수는 고개를 낮추어 방패를 잡고 전진한다. 만약 북소리를 듣고도 머뭇거리며 전진하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그 나머지 병사들까지 참수한다.

③병사들은 등패수의 후방에 밀착해 같이 전진하면서 싸운다. 낭선수는 등패수를 구하고, 장창수는 낭선수를 구하며, 당파수는 장창수를 구한다. 등패수가 죽으면 그가 속한 오(伍)의 병사들은 모두 참수한다. 이 방법대로 싸운다면 승리하지 못할 전투가 없다.<sup>103)</sup>

102) 당순지, 『武編』, [『사고』 제727권, 384쪽]. “秘戰 第七. 一秘戰者, 卽新名, 鴛鴦陣之謂也. 每衝鋒, 五人爲伍, 用長挨牌, 一面, 伍長, 選身長力大者, 一名, 在前執牌面, 左止許顧左, 不許顧右後身, 第二名, 執狼筴, 面右, 以筴出牌, 右五尺, 緊緊靠牌, 其鎗手, 在筴之後三步, 平執鎗, 伍長執牌, 徑進, 餘各緊緊依法隨行, 敵決不敢以鎗戳牌, 如將鎗由牌頂戳來, 伍長用牌一起, 卽將鎗高闊, 急待收鎗, 我之鎗兵出, 而戳敵矣. 如左面戳來, 必欲中傷執狼筴兵之後, 脊鎗須由, 牌兵面前過三尺餘, 牌兵可以手握其鎗, 後之鎗手出矣. 如敵兵將鎗, 由右來欲傷, 牌兵之聲, 筴兵以用筴, 按其鎗鋒, 而後行鎗手又出矣. 如賊用鎗, 由牌下戳牌兵之足, 牌兵用牌一坐, 下壓其鎗, 而後之鎗手又出矣. 至于賊之, 短兵刀鉤等項, 必不能近. 惟牌兵專視一面, 而既護筴兵之脊, 筴兵亦專一面, 而護牌兵之後. 鎗射銃手, 俱立, 牌後六七尺, 則正面矢石, 已不能及, 而復左右皆救矣. 再如, 賊衆道平, 我則通將牌齊列, 雖有萬賊, 進不能與我, 相交刃退, 後有所逼, 而不敢心生. 延望相持, 稍久, 而我之奇伏, 相機遣出, 又張聲勢, 兩翼漸逼, 賊必分兵, 四禦我, 則開牌縫, 而出甲士麾之, 賊計窮矣.”

103) 척계광, 『紀效新書』, [『사고』 제728권, 516쪽]. “凡, 鴛鴦陣, 乃殺賊必勝, 屢效者. 此是緊要束伍. ①第一戰法, 令開式於後, 二牌平列, 狼筴各跟, 一牌以防拿, 牌人後身長鎗, 每二枝, 各分管一牌一筴, 短兵, 防長鎗進的老了. 卽便殺, ②上伍長, 執挨牌在前, 餘兵照鴛鴦陣, 緊隨牌後其挨, 牌手低頭執牌前進, 如已聞鼓聲, 而遲疑不進, 卽以軍法斬首, ③其餘兵仗牌刀遮抵手, 後緊隨牌, 進交鋒, 筴以救牌, 長鎗救筴, 短兵救長鎗, 牌手陣亡, 伍下兵通斬, 要依此法, 無不勝矣.”

예로부터 기강이 해이된 군대는 생명을 걸고 적과 싸우지 못하였다. 겁을 먹고 달아나거나 최악의 경우 자신들의 지휘자를 죽이고 적에게 항복해 버렸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자멸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척계광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오(伍)와 십(什)이라는 조직 속에 철저히 묶어 두었고,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망설이는 병사는 즉각 처형한다는 군율을 정하였다. 그래서 ㉠, ㉡, ㉢의 결론은 모두 참수다. 이 때문에 척계광의 군사들은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생결단 외에 다른 생각 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칠 때는 단순하게 원양진만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기습하기도 했다. 그 한 예를 다음과 같은 상풍령(上風嶺) 전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척계광은 이동하는 왜구들을 섬멸하기 위해 상풍령에 매복을 하였다. 상황을 판단해보니 왜구들이 중도(中渡)에서 출발하여 셋길을 따라 백수양(白水洋)에 가려면 70리를 행군해야 도달할 수 있지만, 명군은 국도를 따라 백수양에 가기 때문에 50리만 행군하면 도착할 수 있었다. 병법에서 '전투할 지역에 먼저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면 쉽게 싸울 수 있다.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막으려면 피를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적을 만나 전투할 때 아군의 숫자가 적고 적병의 숫자가 많으면 반드시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분발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말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말과 군사들을 독촉하여 40리를 행군해 상풍령에 도착한 뒤 여러 곳에 정찰병들을 보내 어디에서 왜구들이 출현할 것인지를 살피면서 약탈하려는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였다.

왜구의 상황이 파악되자 군사들을 고개 위에 올려 5일 동안 매복을 실시하였다. 한편 왜구의 선봉부대가 통과하게 되면 자칫 명군의 매복이 조기에 노출될 수 있기에 군사들에게 각자 소나무 가지 하나씩 꺾어 잡고 매복 장소에 앉게 하였다. 기다리던 왜구들이 나타나자 척계광은 그들의 행군 대형을 관찰해 보았다. 왜구들은 숲이 있어도 복병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이동해 오는데 그 행렬이 20리나 이어져 있으며 의갑과 기치가 매우

거창하였다. 명군은 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왜구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절반쯤 통과하자 병사들은 소나무 가지를 뉘어 놓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였다. 갑작스런 기습에 놀란 왜구들은 3~400명씩 일자진(一字陣)을 구성하며 대항하였다. 명군은 태학생 규여란(葵汝蘭)과 좌증(左蒸)이 일두양익일미진(一頭兩翼一尾陣)으로 공격하고, 진유성(陳惟成)·진법(陳法)·진조(陳蚤)·양문통(楊文通) 등은 조대하(趙大河)와 함께 원양진을 편성하여 무찔렀다. 척계광은 전투하기 전에 부하들에게 명령하길 적의 목을 벨 생각을 하지 말고 비바람 몰아치듯 신속히 공격하되 전진만 할 뿐 후퇴는 못하게 하였다. 전투 중에 전공만 생각하다 보면 죽기로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명군의 기습을 받은 왜구들은 패주하여 산 밑으로 도주하자 정방언(丁邦彦)의 군사들은 셋길을 따라 산 아래로 추격했다. 왜구들이 다시 산 위로 도주하자 명군은 사방에서 산 위를 향해 공격하였다.

척계광은 북산(北山)에 항복을 권유하는 흰 색 깃발인 백고초(白高招) 하나를 세워 놓고 병사들을 시켜 큰 소리로 “항복하면 살려 줄 테니 흰색 깃발 아래로 모여라!”하고 외치게 하자 수 백명의 왜구들이 달려와 투항하였다. 군사들이 도주하는 왜구를 추격하자 수백 명이 아래로 달아났다. 다시 큰 산 위로 도망갔다. 명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산 위로 공격하였다. 왜구들은 다시 대패하여 상계령의 정상으로 달아났다. 이 산의 정상은 험준하기가 기둥 꼭대기와 비슷하였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단지 한 곳뿐이었다. 정방언의 부대가 제일 먼저 산 위로 오르면서 앞뒤로 응원하며 생선 껍데기 위듯 일렬종대로 돌진하자 후속한 오유충(吳惟忠)의 부대가 그 뒤를 잇달았다. 몇 명의 적이 급히 달려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찍으며 베려 하였으나 명군은 장창으로 그들을 찔렀고 창에 찔린 왜구는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명군이 이렇게 싸우면서 정상에 다 올라가자 왜구들은 6~700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접전을 벌였고, 피차 죽을힘을 다해 크게 싸웠다. 왜구들은 패주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다 계곡이나 구덩이 사이로 떨어져 죽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 도망친 자들은

백수양의 주가(朱家)로 달아났다.”<sup>104)</sup> <그림 6>은 이때의 전투 상황도를 표현한 것이다.

상풍령 전투와 같이 척계광의 왜구 소탕작전은 사전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놓고 싸웠지만 적을 격파하는 최종 수단은 원양진이나 이를 응용한 삼재진으로 공

<그림 6> 태주 및 상풍령 전투 상황도



Google earth의 사진에 『주해도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이 매복에 걸렸더라도 마룡의 부대와 같이 역공한다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진법 훈련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104) 정약중, 『籌海圖編』, [『사고』 제584책, 255쪽]. “戚繼光曰, 賊出中渡, 由裏路, 至白水洋七十里, 我兵由官路, 至白水洋五十里, 兵法云, 先處戰地而待敵者伏, 且以寡禦衆, 非謀不克, 而臨敵交鋒, 我少彼多, 必兵心激發, 乃勝. 遂策馬鼓. 行四十里, 至上風嶺, 屯止. 多令探者, 出賊前後, 視其向往. 知狀即, 率兵上嶺, 伏五日. 前鋒兵, 出頗早光, 乃下令, 令人各砍, 松枝一樹, 執而坐. 賊望之, 爲林不介意, 行列二十里, 衣甲旗幟甚盛. 我兵對山, 瞭之俟其行. 過半, 乃仆松吶喊齊出. 賊驚, 以三四百人, 作一字陣, 衝來. 我兵, 分爲一頭兩翼一尾陣, 以太學生, 蔡汝闌·左蒸監督, 而陳惟成·陳法·陳蚤·楊文通等, 俱趙大河, 監督, 以鴛鴦陣, 衝鋒擁殺. 夙受令, 不許取首級, 疾若風雨, 有前無退. 賊遂敗遁, 上一小山, 然猶格鬪不已. 丁邦彥兵, 出裏路徑擣山下, 四面仰攻之. 而戚叅將, 乃樹, 白高招一竿于北山, 下令, 兵大呼脅從者, 從招下走, 走者數百人. 賊復上大山, 我兵又仰攻之, 賊又大敗奔. 上界嶺山巔, 山巔陡峻如柱, 上平廣賊立營, 其上若蓬麻, 然只一徑可攀陟, 丁邦彥等, 首先攀援魚貫上, 吳惟忠等繼之, 數賊疾前來, 從上斫下, 我兵用長鎗, 鎗賊墮岩下, 遂得登頂之, 我兵盡登, 賊六七百人齊來, 交鋒我兵, 戮力大戰, 賊敗走四散, 投落坑壑林谷間, 死者不計. 走者, 奔白水洋, 朱家.”

보편적으로 원앙진은 척계광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105)</sup> 그러나 원앙진과 팔진법의 이치를 비교해 보면 원앙진 역시 팔진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나라 육세의(陸世儀)<sup>106)</sup>와 같은 인물은 원앙진을 가리켜 옛날의 진법이며 방진으로 편성되는 팔진의 정형이라고 하였다. 원앙진은 척계광이 만든 별개의 진법이라는 설과는 대조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육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무비지』를 열람해 보면 무려 100여 가지나 되는 진법이 있으나 그 요령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①척계광의 원앙진을 읽고 나서 비로소 진법의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있었다. ②원앙진은 모두 옛날의 진법이라 반드시 방진으로 편성하여 팔진의 정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적과 마주치는 곳은 정병으로 팔진에서 말하는 사두팔미(四頭八尾)와 촉처상생(觸處相生)이 된다. 양의(兩儀)와 오행, 대삼재(大三才)와 소삼재(小三才)를 병용하며 대진은 소진을 포용하되, 중군은 움직이지 않고 악기(握奇)가 된다. 진에는 반드시 복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팔진에서는 유병이라 한다. 진을 편성할 때는 먼저 부대를 편성해야 하며, 부대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기를 편성해야 한다. ③원앙진의 오묘한 이치는 부대를 편성하고 병기를 편성하는데 있다.<sup>107)</sup>

위 글 ①은 육세의가 『무비지』에 수록된 많은 진도들을 봤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척계광의 원앙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치를 터득하였다는 뜻으로 팔진과 원앙진이 별개의 진법이 아니라 같은 원리를

105) 모원의, 『武備志』, [『병집』 제29책, 1961쪽]. “近世戚少保, 始爲鴛鴦陣, 亦其便宜, 非古陣制也.”

106) 육세의(1611~1672)는 명말, 청초 때 강남 태창사람으로 유종주의 제자이다. 청이 건국되자 과거를 보지 않았으나 천문지리 등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또한 무예에도 정통하여 석경암에게 창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저서에는 『思辨錄』·『三吳水利志』·『桴亭先生詩文集』 등이 있다. [『인전』, 1316쪽].

107) 육세의, 『思辨錄輯要』 제17권, 「治平類」. “向閱武備志, 陣法無慮百數, 不能得其要領, 心頗輕之, 及閱戚少保, 鴛鴦陣, 始知陣法之妙…鴛鴦陣, 皆是古法, 必爲方陣, 八陣之正形也. 遇敵者, 爲正兵, 八陣之四頭八尾, 觸處相生也. 兩儀五行, 大三才, 小三才, 大陣包小陣也. 中軍不動握奇也. 陣必爲伏, 八陣之遊兵也…制陣, 先制隊, 制隊先制器, 鴛鴦陣之妙, 制隊制器之妙也.”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㉞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양진 역시 방진을 운용했던 옛 진법의 하나이며 팔진법에서 말하는 각종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㉟는 진법에서 조직편제와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이것은 원양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법에 적용되는 원칙과 같다.

육세의 말에 따라 『기효신서』에 수록된 원양진과 진법의 원전이라 하는 『악기경』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원양진은 매 돌격대마다 5명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은 『악기경』의 진법에서 전·후·좌·우·중의 다섯 자리로 구성된 1오(伍)의 편성과 같다.

둘째, 원양진에서는 힘이 좋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을 선발해 오장으로

임명하고, 오장은 등패(籐牌)나 애패(挨牌)를 들고 부하들을 지휘했는데, 패는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 장비이다. 『악기경』에서는 방어진을 형성하는 부대로 지진(地陣)이 편성되었고 지진을 구성하는 부대들은 축 또는 지축이라 하며 대장이 그 중앙에 위치하였다.<sup>108)</sup> 이것은 원양진에서 오장이 패를 들고 수비하며 부하들을 지휘하는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원양진에는 1오에 1자루의 낭선이 편성되었다. 낭선의 역할은 왜구의 장검이나 창과 같은 공격을 막아내며 적을

〈표 4〉 팔진과 원양진의 비교

| 구분 | 팔진 | 그림                                                                                  | 원양진 |
|----|----|-------------------------------------------------------------------------------------|-----|
| 지휘 | 握奇 |    | 隊長  |
| 방어 | 地軸 |   | 籐牌  |
| 攻防 | 天衡 |  | 狼筈  |
| 공격 | 天衝 |  | 槍   |
| 역습 | 風雲 |  | 銃   |
| 예비 | 遊兵 |  | 火槍  |

108) 척계광, 『紀效新書』, 『사고』 제728책, 577~578쪽.

살상할 수 있는 공방 겸용의 병기였지만 주 임무는 패를 보조하면서 창수가 재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sup>109)</sup> 『악기경』에는 전투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대라는 의미로 천형(天衡)을 편성하고 있다. 이 부대는 공격과 수비를 병행하며 돌격부대의 공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낭선의 역할은 천형의 기능과 같다고 본다.

넷째, 원양진에는 1오에 2자루의 창을 편성하였다. 창은 공격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십팔반병기 중에서 장병기의 으뜸으로 꼽고 있다.<sup>110)</sup> 『악기경』의 천진(天陣)은 공격진으로 이를 구성하는 부대는 천충(天衝) 또는 충이라 한다. 충은 강한 파괴력을 갖고 적을 궤멸시키는 부대로 오늘날 전차 부대와 같다. 그래서 창은 진법에서 천충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섯 째, 원양진에는 1오에 1자루의 당파(鎗鈹)를 편성하였다. 당파는 삼지창으로 창에 비하여 공격기능은 떨어지지만 방어기능이 보완되었다. 그래서 방어하며 공격해야 하는 근접전에 유리한 무기이다. 왜구의 도검이 지척에 근접하면 긴 창으로는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파로 공격하게 하였다. 당파는 창보다는 자루가 짧지만 왜구의 칼보다는 길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sup>111)</sup> 『악기경』에서 풍운이나 유병(遊兵)의 역할은 역습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장은 전투를 지휘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의 허점이 발견되면 즉시 풍운진이나 유병을 출동시켜 전세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당파는 풍운의 역할과도 같다고 본 것이다.

여섯 째, 원양진에 따라서 화창(火槍)을 편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화창은 팔진에서 기습이나 역습을 담당하는 예비부대인 유병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표 4>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척계광이나 그가 지은 저서에 팔진과 원양진의 원리가 같다고 명시한 것은 없다. 만약 명시해 놓았다면 이것을 연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팔진의 원리와 원양진의 원리를 분석하다 보니 우연의 일치

109) 위의 책, 581쪽.

110) 위의 책, 568~569쪽.

111) 위의 책, 584~585쪽.

라고 볼 수 없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으며, 척계광이 팔진법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기효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혹 전투원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오(伍)의 구성원이 아닌 군사들 중에서 선발하여 보충시키고 중군에 비축된 무기를 보내 전투하는 진영이나 행오에 단 한 명의 군사라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며, 단 한 자루의 무기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 그런 다음에 다시 출전시켜야 한다. 팔진에서 '24개 부대의 유병으로 부족한 부대를 보충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각개 진영의 전투력은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가 되고 그와 더불어 군사들의 사기 역시 항상 충만하게 된다. 지금 나의 중군은 바로 팔진의 유병인 셈이다.<sup>112)</sup>

위 글은 척계광이 중군 즉, 지휘소이자 본부대의 역할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부는 항상 예비 병력과 전투장비를 확보해 두고 있다가 전투 부대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무기가 손실될 경우 즉시 보충해 주어 전투부대로 하여금 항상 완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팔진에서 24개의 유병부대를 예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척계광의 병법이 팔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는 원양진 역시 팔진법에서 응용한 것이라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원양진은 척계광의 창의력에 의해 고안된 것이지만 그 원리는 팔진법에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진에서 다양한 진들이 분화되는 것 같이 원양진 역시 분화된 변진(變陣)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척계광은 장엽이나 조분학 등과 같이 진의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원리만을 응용하였던 것이다. 그가 병법이나 진법에 탁월한 군사전문가였으나 『기효신서』나 『연병실기』 어디에도 장엽이나 조분학 등이 그려

112) 위의 책, 502쪽. “或頭目，有事故者，伍下之人，分投補足，以中軍所蓄器械，那移貸之，務使戰營行伍，一卒不缺，一器不之。然後，又爲再出之舉也。八陣所謂，遊兵二十四隊，防備設疑補缺之用，正謂此也。是以，各營，時時有常足之額，士卒有常盈之氣，今予之中軍者，卽八陣之遊兵也。”

놓은 것과 같은 진도는 없고 몇 가지 무기의 형태만 그려 놓았다. 이것은 그가 진법의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원리만을 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진에서는 정병(正兵)이 기병(奇兵)이 되며 기병이 정병이 되는데 원앙진에서도 그 이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방패의 기능은 방어(正兵)에 있지만 척계광은 공격(奇兵)에도 활용하여 방패를 앞세워 적진을 뚫고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마룡이 녹각편상거를 앞세워 진격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패의 뒤를 이어 낭선을 배치한 것은 팔진에서 충이 개척한 통로에 형을 투입시켜 전과확대 하던 이치를 적용시킨 것이다. 적진을 헤쳐가려면 창보다는 낭선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팔진에서 풍과 운의 역할은 기습과 돌격이다. 척계광은 이것을 두 자루의 창으로 풍운의 기능을 발휘시켰다. 맨 뒤에 단병수를 배치하여 창과 낭선·패를 근접 보호하게 한 것은 팔진에서 축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오장이나 십장이 기를 들고 지휘한 것은 팔진에서 보면 악기(握奇)의 역할인 셈이다.

이와 같이 팔진과 원앙진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창안한 팔진도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대규모 부대의 방진 대형이 아니라 원앙진과 같은 소규모 부대의 전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갈량의 팔진도를 연구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8 \times 8 = 64$ 의 누석 방진만을 연구하였지 척계광과 같이 진법의 이치를 응용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외형에 치중한 진법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원리를 응용한 원앙진은 탁월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앙진법은 화력무기의 파괴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부대 단위로 분산 작전하는 현대 전장의 전투 방법과도 부합된다.

원앙진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었다. 그 한 예로 척계광이 죽은 후 허국한(許國翰)은 연동도(兗東道)에서 왜구들을 토벌할 때 무강차(武剛車)와 원앙진법으로 여러 차례 승전하여 연동 지역의 인심을 안정시켜 놓았다.<sup>113)</sup> 조선에서는 정도전의 오위진법을 바탕으로 『진법』을

113) 『陝西通志』 제57권, 〈人物 三〉. “許國翰, 涇陽人. 天啓壬戌進士, 爲儀封令, 開支河以洩水, 又損俸置義倉, 以備賑. 歷陞岳州道, 練水兵焚賊船, 洞庭積寇一清. 改兗東道, 用武剛車,

간행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가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척계광의 전법을 도입하고, 『기효신서』를 간행하여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삼았다. 이것은 고대의 진법 훈련은 단순한 부대 훈련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혹자는 오위진법이니 원양진이니 하며 진법의 외형만을 논하며 척계광의 진법이 기마민족에게 효력이 없다<sup>114)</sup>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척계광은 북변에서 계진(薊鎮)을 수비할 때도 진법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변은 광활하고 험준한 지역이 많으며 기마민족들은 말을 달리며 활을 잘 쏘았기에 왜구와 싸우던 방패 대신 전차를 만들고 적대(敵臺)를 축조하는 등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명사(明史)』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척계광이 맡고 있던 계문(薊門)의 수비가 워낙 견고하여 빈틈이 전혀 없었기에 적들이 침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적들은 요동만을 공격하였기에 요동을 지키는 이성량(李成梁)이 전공을 독점하였다”<sup>115)</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척계광은 한(漢)나라의 위청(衛靑)이나 괘거병(霍去病)과 같이 막북으로 진출하여 원거리 토벌은 하지 못했지만 그 원인은 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당시 명군의 전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 5. 맺음말

진법(陣法), 또는 팔진법(八陣法)으로 불리우는 고대 전법(戰法)은 부대가 적과 전투를 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형의 하나로 시대와 인물에 따라 각자

駕爲陣，屢挫賊鋒。克東人心，始固終。”

114) 안명노, 유재성 역, 『演機新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29~32쪽.

115) 장정옥, 『明史』 제18책, 북경 중화서국, 1995, 5616쪽. “自順義受封，朝廷以八事課邊臣，曰積錢穀·脩險隘·練兵馬·整器械·開屯田·理鹽法·收塞馬·散叛黨。三歲則遣大臣閱視，而殿最之。繼光用是類陰賚，南北名將馬芳·俞大猷前卒，獨繼光與遼東李成梁在。然薊門守甚固，敵無由入，盡轉而之遼，故成梁擅戰功。”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척계광이 만든 원양진 역시 그와 같은 고대 진법의 하나이다. 복희와 황제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진법은 춘추·전국시대에는 어려진·승졸진·형시진·계부진·아관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었고, 촉한의 제갈량은 팔진도를 만들어 위(魏)나라를 공격하였다. 이후 서진의 마룡은 팔진법으로 서량의 수기능(樹機能)을 격파하였고, 당나라의 이정은 육화진으로 돌궐을 물리치며 기마민족의 장기인 기사(騎射)를 극복하였다.

반면에 당나라의 이전(李筌)이나 송나라의 증공량과 허동, 명나라의 장엽과 용정, 조본학과 같은 문사(文士)들은 진법을 학문적인 체계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팔진법의 비결을 진의 외형에서 찾고자 하였기에 실전에 사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명나라 중기까지도 뛰어난 진법이 출현하지는 못하다가 만력(萬曆) 시기에 척계광에 의해 원양진이 창안되었다. 원양진의 등장은 이정(李靖) 이후 천 년 가까이 신비 속에 묻혀 있던 진법이 재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척계광이 왜구를 토벌할 때 주도면밀한 매복 작전 등을 구상하여 적을 함정에 빠뜨려 놓았지만 원양진이라는 강력한 진법이 없었다면 전승을 보장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원양진은 고대의 팔진법과 별개의 진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구성 원리를 보면 팔진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팔진에서 충·형·축·풍·운·유·의 기능들은 원양진에서 패(축), 낭선(형), 창[충], 당파[풍운], 화창[유병]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2개의 오(伍)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싸우는 것은 팔진에서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호응하며 싸우는 이치와 같다. 이와 같이 팔진과 원양진의 원리가 동일한 것이라면 제갈량이 사용했던 팔진도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대규모 부대의 방진대형이 아니라 원양진과 같이 소규모 부대의 진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화력무기의 파괴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부대 단위로 분산 작전하는 현대 전장의 전술 상황과도 부합된다.

원양진은 남방의 왜구를 토벌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북변의 기마민족과

싸우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였다. 그러나 『명사』의 기록을 보면 척계광은 계진(薊鎭)에서도 팔진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원양진의 방패 대신 전차를 제작하였고, 수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적대(敵臺)를 축조하였다. 북변을 침략한 변경 민족들은 척계광이 두려워 계진을 피하고 요동만 공격했기 때문에 척계광이 전공을 세우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역대의 전장에서 뛰어난 진법을 강구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전쟁에 대비한 전략·전술·전법 등에서 최후의 승패를 가르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법은 '죽느냐 사느냐! 존립하느냐 망하느냐!'하는 시대의 절박한 상황에 의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송나라 신종이나 조선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진법서를 간행하며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진법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팔진법이나 그에 대한 연구들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역사 속에 묻혀 버렸다.

진법은 역사적으로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진법은 단순한 전투 수단만이 아니었다. 하나의 진법을 창안하여 성공시키면 이에 따르는 다양한 시대 상황이 고려되어야 했다. 그 국가는 물론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제 분야에 뒷받침되는 조건들을 무시하고 만든 진법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법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본다. 둘째, 역사의 반복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역대 진법들의 출현을 보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였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원리는 동일하였다. 즉 진의 조직과 부대의 편성, 공격과 방어에 따른 기정의 운용,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변화, 기습과 충격행동 등의 원칙은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척계광이 방진이니 원진이니 하며 옛 사람들이 운용했던 고정된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팔진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원양진을 만든 것 같이 진법을 운용하는 이치를 탐구해 본다면 현대나 미래의 전장에서조차 적지 않은 교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6. 26,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팔진(八陣), 팔진법(八陣法), 방진(方陣), 진법(陣法), 원앙진(鴛鴦陣),  
척법(戚法), 척계광(戚繼光), 『악기경(握奇經)』, 『기효신서(紀效新書)』,  
왜구(倭寇).

<ABSTRACT>

## Qījī Guāng's Yuānyāngzhèn in the later Míng Dynasty and the principle of the Bǎizhèn

Hong, Eul-pyo

The reason to devise excellent zhènǎ(dispositions of troops) on the ancient battlefields was that it was one of the last means to determine victories in war. So zhènǎ appeared at the time of the critical moment of life and death.

For a while, Yuānyāngzhèn had been considered different from the ancient Bǎizhènǎ but the analysis of its composition principles shows that it was made by applying Bǎizhènǎ's principles. The functions of Chōng(a spear), Héng(balance), Zhóu(the axis), Fēng(wind), Yún(cloud) and Yóubīng(a drifting weapon) in Bǎizhèn were also applied to Yuānyāngzhèn. Namely, Pái(a shield) had Zhóu(the axis)'s, Lángxiǎn(a spear with some blades) had Héng(balance)'s, Qiāng(a spear) had Chōng(a spear)'s, Dǎng(a trident) had FēngYún(wind and cloud)'s and Huǒqiāng(a burning spear) had Yóubīng(a drifting weapon)'s functions and the fighting principle that two lines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was the same that Qībīng and Zhēngbīng acted in concert. If the principles of Bǎizhèn and Yuānyāngzhèn were the same, there would be a high chance that Bǎizhènǎ used by ZhūgěLiàng was not Fángzhèn(a square formation) for the large army but tactics for the small one like Yuānyāngzhèn.

From these, we could find that the principles to compose zhènǎ were the same throughout history. Accordingly, the principles organizing battle units, forming zhèn, operating Qízhēng according to attack and defense, changing properly depending on situations and attacking suddenly or shockingly would remain unchanged in the future. Therefore, like the way that QījīGuāng made Yuānyāngzhèn using the inner principles without being

obsessed with the fixed outward forms, which ancients sought, as calling them Fángzhèn(a square), Yuánzhèn(a circle) and the like, if we study on the principles of ancient Zhènǎ, we could also search for not a few lessons for the modern or future battles.

Key Words : Bāizhèn(八陣), Bāizhèn fǎ(八陣法), Fángzhèn : a square formation(方陣), Zhèn-fǎ(陣法), Yuānyāng zhèn(鴛鴦陣), Qífǎ(戚法), Qījī Guāng(戚繼光), “Wò jī jīng(握奇經)”, “Jī xiào xīn shū(紀效新書)”, Wōkòu : Japanese pirates(倭寇).